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요소에 관한 메타분석

- 국제기업협력 vs 100% 투자 -

A Meta Analysis on Decision Factors of a Foreign Market Entry Strategy
- International Company Cooperation vs. Wholly-Owned Subsidiary -

조성현(Sung-Hyun Cho)

한양관경경영아카데미 경영학박사(주저자)

최 선(Sun Choi)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부저자)

목 차

I. 서 론	IV. 결 론
II. 이론적 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모형 및 실증분석	Abstract

Abstract

In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analyze what are decision factors between a wholly-owned subsidiary and a international company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From 57 primary studies found 26 observed variables for aggregation of effect size in the using "Fixed Effect Model" on this meta-analysis. The article also links the theories that are used in the literature, not considered in the most of primary studies, to the empirical results and recommends global management strategy which is needed for business practical affair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meta-analysis suggests that the number of employees of a MNC, the geolog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host country and home country, the country-specific international experience of the MNC and export intensity, the international product diversification, the market growth and the market size of the foreign operations, and resource intensity of the foreign operations, the legal restrictions in the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risk of the home country do exer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ision between cooperative arrangement and a wholly-owned subsidiary. Conversely, for a large number of variable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seems to exist based on the combined results. This is the case, for example, for factor specificity, the r&d-intensity, the subsidiary size, the assets of the MNC and the sales volume of the MNC.

Key Words : Market entry strategy, international company cooperation, 100% owned subsidiary. Meta-analysis

I. 서론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은 해외법인의 조직구조, 모회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경영통제 기법 및 강도, 모기업의 해외시장에 자본/자원 이동의 크기, 현지국의 경영위험의 크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제경영전략의 의사결정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으며(Hill et al., 1990; Sarkar and Cavusgi, 1996; Kutschker and Möblang, 1996; Johnston and Meringues, 2007) 다수의 실증분석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arkar and Cavusgil, 1996; Kumar and Subramaniam, 1997; Madhok, 1998). 참고문헌 고찰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은 일반적으로 직·간접 수출, 국제기업협력¹⁾, 100%투자로 분류하고 있다(반병길·이인세, 2008; 장세진, 2003).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연구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관한 설명이론과 결정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또한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로 인하여 체계화일원화된 결정요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Macharzina and Engelhard, 1991; Sarkar and Cavusgil, 1996).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요소에 관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연구에 활용된 결정요소,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이론을 총체적으로 통합하여 재검증·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에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진입유형 전략수립 및 국제사업 기회확대에 필요한 기업실무 국제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선행연구에서 고찰되지 않은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이론과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 및 전개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요소를 설명하는 국제화이론을 고찰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결정요소의 도출,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설 및 연구결과를 기초로 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제3장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의미 분석, 연구의 한계성을 분석하여 국제경영전략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과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이론

국제경영전략 참고문헌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관한 많은 국제화이론이 논의

1) 본 논문에서 국제기업협력은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되고 있으며(Benito, 1996; Sarkar and Cavusgi, 1996; Kumar and Subramaniam, 1997) 일반적으로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Theory)을 기초로 하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이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이론 설명에 가장 많이 인용된다고 할 수 있다(Williamson, 1985; Yiu and Makino, 2002). Coase(1937)가 창안하고 Williamson(1985)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된 거래비용이론은 거래주체가 거래의 성립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적절한 거래파트너 선정에 관한 정보수집 비용, 계약체결 비용, 계약관리 비용, 계약실행 비용의 관점에서 분류했으며 거래유형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찰하고 있다(Williamson, 1985).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거래주체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m)으로 인해서 기업은 거래 주체간의 거래특유자산(Transaction Specific Asset), 거래 빈도(frequency), 거래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uncertainty & complexity), 소수거래관계(small numbers bargaining) 요소로 인한 거래비용이 상승할수록 거래를 내부화할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다(Williamson, 1985). 따라서 거래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매우 상세한 계약내용의 체결과 엄격한 감시를 통해서만 통제가 가능하므로 직·간접 수출, 국제기업협력, 100%투자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Dwyer and Oh, 1988; Hennart, 1989; Klein et al., 1990).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거래효율성의 측면만 강조한 거래비용이론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으로 추가적인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이론에 관한 설명이론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일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Hill et al., 1990; Sarkar and Cavusgil, 1996).

①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은 거래비용이론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요소의 설명에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다. 기업은 자원의 집합체이며 기업의 경영성과는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기업특유의 소유 자원(resource)과 능력(capabilities)의 효율적인 활용의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Wernerfelt, 1984). 해외시장 진입 시에 기업소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능력 및 확장 가능성, 해외파트너 기업 소유자원의 활용 가능성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선행연구에서 고찰되었다(Ekeledo and Sivakumar, 2004).

② 조직학습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기업 간의 경쟁우위는 기업이 소유한 특수한 학습능력과 노하우의 활용 및 개발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며 해외시장진입유형은 기업이 소유한 학습능력의 정도와 기업노하우의 해외시장 적용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Nadkarni and Perez, 2007; Madhok, 1998; Erramilli et al., 2002).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인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습득된 기업특유의 노하우가 기업내부에 존재한다면 100%투자 유형을 선호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해외파트너 기업의 특수한 노하우와 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학습을 통한 이전이 가능한 국제기업협력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adhok, 1998). 거래비용이론은 국제기업협력의 경우 파트너기업의 노하우 습득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파트너기업에 의한 노하우 유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직학습이론은 파트너기업의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습득·이전할 수 있는 장점에 논점을 두고 있다(Gannon, 1993).

③ 국제화 단계모델(internationalization process model)은 거래비용이론, 자원기반이론과 함께 해외시장

진입유형 결정에 자주 인용되는 이론으로 현지국에 관한 기업의 전문적인 사업지식 및 경험 등의 특수한 능력에 의한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논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학습이론을 근거로 한다(Pla-Barber, 2001; Deng, 2003). 또한 위 이론은 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 의사결정자의 전문지식과 기업이 소유한 자원의 전문성 및 크기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의 경험이 적은 기업일수록 초창기에는 단순한 직·간접수출이나 국제기업협력의 진출유형을 선택하고 점진적으로 M&A 또는 100% 투자 유형으로 발전하는 해외시장진입유형을 추천하고 있다. 위 이론은 행동주의이론(Behavioral theory)과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은 항상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비합리적 또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한 유동적인 의사결정과 협상파트너의 기회주의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자의 해외시장진입 목적을 기초로 하여 해외시장진입의 위험성 최소화,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략 및 불확실한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Swoboda, 2002). 기업의 해외시장진입은 이윤극대화 이외에도 다른 목적 및 동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목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진입유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Kogut and Singh, 1988; Kim and Hwang, 1992; Gannon, 1993).

④ 기업전략이론(corporate strategy theory)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에 필요한 경영전략과 해외법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진입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논점을 두고 있다. 특별히 국제시장에서 경쟁기업간의 상호관계, 해외시장진입 목적이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해외법인의 통제기법 및 범위를 주요한 연구분야로 논의하고 있다(Contractor, 1990; Gannon 1993; Birkinshaw and Morrison, 1995; Sarkar and Cavusgil, 1996).

⑤ 교섭력이론(Bargaining Power Theory)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은 M&A 또는 100%투자와 같은 기업내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합작법인(Joint Ventures)과 같은 국제기업협력을 선호하는 현지국 기업과 정부와의 협상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Lecraw, 1984; Gomes-Casseres, 1990; Kumar and Subramanian, 1997; Deng, 2003). 일반적으로 해외기업은 기업고유의 우수한 자원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현지국 기업과 정부는 국내시장과 자원의 통제권을 교섭력으로 활용한다(Deng, 2003).

⑥ 신제도이론(neo-institution theory)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은 현지국의 기업 외부환경과 기업의 내부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조직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Yiu and Makino, 2002). 거래비용이론은 해외시장진입을 통한 경영성과의 극대화에 논점을 두고 있으나 신제도이론은 기업의 자원능력과 해외시장 진입목적 및 상황에 적합한 진입유형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Roberts and Greenwood, 1997; Yiu and Makino, 2002).

2.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요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인용된 모든 결정요소 및 분석결과를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다음과 같은 3단계 자료수집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난 30년간 다음과 같은 주요한 학회지에 발표된 해외시장

진입유형에 관련된 논문을 분류하였다.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80 이후), Journal of Management (1975 이후),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992 이후),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983 이후),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993 이후), Organization Science (1990 이후),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1981 이후),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995 이후),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둘째, 약 천개의 경제경영학술지의 데이터뱅크 “Business Source Premier”에 입력된 해외시장진입유형에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특별히 entry mode, entry form, market entry, institutionalization, joint ventures, subsidiaries와 같은 검색용어를 사용하였다. 셋째, 위와 같이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재검색하여 누락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61개 논문 중에서 57개의 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에 관련된 실증 분석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총 168개의 관측변수 중에서 최소 5회 이상 연구에 활용된 26개 변수를 <표 1>에 정리하였다.

1) 현지국의 특수요소

① 투자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차이(CULT): 참고문헌에서 고찰된 투자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차이에 의한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Madhok, 1998). 조직학습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능력과 학습태도는 투자국의 현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논의하고 있다. 투자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유 기술 및 전문지식의 현지국으로 이전은 문화차이가 클수록 이전 효율성이 저하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비용이 발생하므로 국제기업협력의 시장진입유형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Madhok, 1998; Contractor and Kundu, 1998a; Pla-Barber, 2001). 또한 현지국의 파트너기업이 문화적인 격차로 인하여 투자국기업의 기술 및 전문지식을 수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효율적인 노하우 이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국 기업은 현지국의 사회문화에 관한 학습지식을 기초로 100%투자와 같은 기업내부화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이 효율적인 시장진입유형으로 분석되었다(Kogut and Singh, 1988; Kogut and Zander, 1993; Madhok, 1998). 그러나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시장진입의 학습능력이 저조하고 경영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100%투자의 해외시장진입유형이 효율적인 해외법인 통제, 모기업 노하우 이전 등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국제기업협력을 통한 위험분산을 강조하고 있다(Mahnke and Venzin, 2003; Chen and Hu, 2002).

② 현지국의 국가 위험도(RISK): 일반적으로 국제기업활동의 위험요소는 기업환경의 불규칙적인 변화와 예측 불가능요소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Anderson and Gatignon, 1986). 정치적인 불안정, 불규칙적인 경제상황 변화 등은 국가위험도 측정지수로 활용되며 현지국의 기업환경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Hildebrandt and Weiss, 1997).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기업내부화를 통한 해외시장진입 유형은 외부거래 방식과 비교하여 외부 위험요소 통제에 효율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Williamson, 1985; Klein et al., 1990; Contractor and Kundu, 1998a)

③ 현지국의 GNP/GDP: 한 국가의 소득수준은 다양한 경제분석에 활용되는 수치로서 특별히 현지국 기업의 수준과 시장경쟁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수치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의 기업은 높은 경영능력 및 사업경험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국제기업협력의 시장진입방식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Gomes-Casseres, 1989). 조직학습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GNP/GDP 지수가 높은 국가의 기업이 투자국기업의 노하우 및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ontractor and Kundu, 1998a). 위와 같은 Contractor and Kundu(1998a)의 분석결과를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분석하면 선진국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상표와 기타 재산권의 보호수준이 높은 것으로 고찰되었다. 따라서 높은 소득수준은 거래비용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해외파트너 기업의 효율적인 전략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안정적인 경제구조와 높은 시장잠재력을 의미할 것이다(Benito, 1996). 현지국의 높은 GNP와 GDP 수치를 시장의 크기 및 매력도의 평가지수로 선택하는 경우 대부분 100%투자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nito, 1996; Erramilli et al., 1997). 또한 현지국의 소득수준이 투자국과 유사할 경우 현지국 기업은 해외파트너 기업의 노하우 및 기술이전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Delios and Henisz, 2000) 파트너기업의 경쟁우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Erramilli et al., 1997).

④ 현지국의 시장규모(MSIZE):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지국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기업내부화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Davidson and McFetridge, 1984; Erramilli et al., 1997; Ekeledo and Sivakumar, 1998). 그 이유는 현지국의 시장규모(잠재력)가 클수록 해외법인 설립에 투입되는 고정비용의 비율이 일정하고 유동비용이 낮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Agarwal and Ramaswami, 1992; Buckley and Casson, 1996; Chen and Hu, 2002).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현지국의 시장규모는 거래빈도의 평가지표로서 기업내부화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현지국의 시장성장도(MGROWTH): 현지국의 시장성장도는 부분적으로 시장매력도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며 해외투자자의 투자유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hang and Rosenzweig, 2001; Brouthers, 2002). 조직학습이론에 의하면 시장성장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내부학습 보다는 외부학습을 통한 기업 경쟁 우위 자원 확보 및 능력향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업협력을 통한 해외시장진입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Madhok, 1998). 그러나 매우 급격한 시장성장도의 경우 100%투자 유형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Hennart and Reddy, 1997; Cleeve, 1997; Chang and Rosenzweig, 2001). 또한 Hennart and Reddy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우 낮은 시장성장도의 경우도 현지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회사설립과 국제기업협력유형이 추가적인 생산설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해외시장진입유형으로 고찰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조직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시장성장도가 증가될수록 국제기업협력과 인수합병보다는 100%투자 유형이 효율적이며 기업경쟁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시장성장도가 낮을수록 현지국기업의 인수합병이 효율적인 해외시장진입유형으로 고찰되었다(Hennart and Reddy, 1997).

<표 1> 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n=57)

관측변수	n	관측변수	n
투자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차이(cult)	29	협력파트너의 계약서 불이행 위험도	3
R&D 집중도(md)	27	협력파트너의 기회주의 성향	3
현지국의 국가위험도(risk)	23	소속업종: 제조업체 vs 서비스업	3
광고빈도/제품 다각화(adv)	22	해외법인 설립유형: 신규설립 vs 인수합병	3
현지국의 사업경험/지식(iexland)	21	모기업의 크기(경쟁기업과 비교)	2
국제기업협력 및 100%투자에 관한 현지국 정부의 규제(restrict)	18	모기업의 크기(절대적 크기)	2
제품 국제다각화(diverae)	17	수익률	2
국제사업경험(일반적경험)(iexallg)	13	기업경영전략에서 규모의 경제 의미	2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경험(iexmulti)	13	기업경영전략에서 outlets 의미	2
기업의 크기(종업원)(grempl)	12	기업경영전략에서 계획적관리의 의미	2
현지국의 시장성장도(mgrowth)	12	기업경영전략에서 품질정책 의미	2
모기업과 비교한 해외법인의 규모(relaesiz)	10	교육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도	2
현지국의 자원소유 규모(resource)	10	글로벌 경영전략 추진정도	2
기업의 규모(매출액)(grsales)	9	현지국에서 해외법인의 매출액	2
현지국의 GNP/GDP(gnppp)	9	기술이전의 진실성	2
해외법인의 규모(absaesiz)	9	해외파트너 기업에 기술/지식 이전 횟수	2
현지국의 주력업종의 현황(conc)	8	해외법인의 현지국 파트너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관한 모기업의 사전허가 필요	2
(생산)요소 특수성(specif)	8	이전하는 기술/지식의 연령	2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export)	7	시장매력도	2
현지국의 시장크기(msize)	7	해외투자자에 의한 투자대상물에 관한 현지국의 보호규정	2
권력과의 거리(pdi)	6	현지국 기업들의 제품/기술 모방정도	2
기업의 규모(자산)(grassets)	5	모·자회사의 총 자본능력	2
해외법인의 존속년수(ageae)	5	해외법인의 기술력 및 시스템 판매 정도	2
모기업의 사업다각화 정도(divermg)	5	모·자회사 간의 수익분배 구조	2
불안회피 정도(uai)	5	해외법인의 기능(생산/판매 기능)	2
해외법인의 자본능력(kapint)	5	제품다각화(요소)	2
현지국의 시장잠재력	4	해외법인의 사업성과도 판단기준	2
현지국의 수요변동성	4	지리적 격차	2
현지국에서의 사업년수 계획	4	소속업종: 제조업체 vs 기타	2
모기업이 그룹의 계열회사 소속 유무?	3	소속업종: 서비스업vs 기타	2
현지국의 시장경쟁도	3	현지국에서의 해외법인의 소재지 (중심지/지방)	2
현지국의 수입장벽 정도	3	해외법인의 설립년도	2

• 약어가 사용된 26변수는 본 메타분석의 연구에 활용되었다.

⑥ 현지국 해당업종의 경쟁현황(CONC): 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 유형 결정에 현지국 해당업종의 경쟁현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지국 해당업종의 경쟁이 높을수록 100%투자 유형보다는 국제기업협력의 유형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Hennart and Reddy, 1997). 그 이유는 시장경쟁이 높을수록 새로운 시장진입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경쟁기업이 강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100%투자 유형의 결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었다(Singh and Kogut, 1989; Hennart and Larimo, 1998; Chang and Rosenzweig, 2001). Singh and Kogut(1989)의 연구에 의하면 시장경쟁이 높을수록 현지국기업의 인수합병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진입의 전략적 수단으로 국제기업협력의 진입유형이 효율적인 것으로 고찰되었다. 그러나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시장경쟁이 높을수록 현지국 협력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100%투자 유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Gomes-Casseres, 1990; Hennart and Larimo, 1998).

⑦ 국제기업협력 및 100%투자에 관한 현지국 정부의 규제(RESTRIC):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제기업협력 및 100%투자에 관한 현지국 정부의 규제가 높을수록 국제기업협력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Davidson and McFetridge, 1984; Gagnon and Anderson, 1988; Gomes-Casseres, 1990; Delios and Beamish, 1999; Yiu and Makino, 2002; Brouthers, 2002). 현지국 정부의 규제는 100%투자 유형을 제한하거나 또는 국제기업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투자자 보호정책 등으로 분류된다(Gagnon and Anderson, 1988; Gomes-Casseres, 1990; Roberts and Greenwood, 1997; Delios and Beamish, 1999).

2) 투자국 특유의 결정요소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투자국의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이론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PDI와 UAI를 활용하여 국가의 문화차이가 진입유형결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① 권력과의 거리(power distance index, PDI):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과의 거리는 거래비용이론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론을 기초로 해외협력파트너의 행동분석에 활용하였다. Parkhe (1993) and Shane(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가별 경영자의 신뢰도는 국가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ofstede의 문화차원 분류에 의한 권력과의 거리는 국가별 경영자의 신뢰성 평가지표로 자주 활용되며 신뢰성의 차이는 협력파트너의 기회주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결론적으로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고찰되었다(Makino and Neupert, 2000). 현지국 경영자의 신뢰도가 낮을수록(양자국간의 PDI 측정지수가 높을수록) 100%투자 유형을 선호할 것이며(Brouthers and Brouthers, 2003), PDI 지수가 높은 국가의 다국적기업은 자체 의사결정권을 소유할 수 있는 100%투자를 선호할 것이며 국제기업협력의 경우 투자국의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소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Erramilli, 1996; Hennart and Larimo, 1998).

② 불확실성 회피도(UAI): 불확실성의 회피도(UAI)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Kogut and Singh(198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국제화단계모델에서 기업의 국제사업경험은 경영자의 위험회피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진입시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자원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논의 되었다. 또한 Hofstede의 문화 분류에서 불확실성의 회피도가 매우 높은 국가의 기업은 국제기업협력을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Hennart 1991; Brouthers and Brouthers, 2003).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불확실성 회피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일수록 국제기업협력보다는 매우 체계적이며 정확한 의사결정권의 조직구조를 소유한 100%투자 유형을 선호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파트너 기업의 기회적인 행동을 불확실한 요소로 분류하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때문에 불확실성의 회피도(UAI)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원화된 이론의 제기가 불가능하다(Erramilli, 1996; Makino and Neupert, 2000; Brouthers and Brouthers, 2003).

3) 기업특유의 결정요소

Pla-Barber(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와 사업경험은 기업특유의 경쟁우위 요소로 분류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진입유형의 기업내부화를 선호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Erramilli et al., 1997).

① 기업의 규모(GRsales, GRempl, GRassets):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현지국에서의 자원투입 능력과 경영위험의 수용능력이 높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의 사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현지국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원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기업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Hildebrandt and Weiss, 1997; Ekeledo and Sivakumar, 1998; Erramilli et al., 1997; Pak and Park, 2004; Chang and Rosenzweig, 2001). 기업의 규모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매출규모(GRsales), 종업원 수(GRempl), 자산규모(GRassets)를 측정변수로 분석하였다(Erramilli et al., 1997; Hildebrandt and Weiss, 1997; Hennart and Larimo, 1998; Chang and Rosenzweig, 2001; Lu, 2002; Pak and Park, 2004).

② 국제사업경험도(IEXland, AGEAE, IEXmult, IEXallg, EXPORT):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이론이 정립된 이후부터 기업이 소유하지 못한 경쟁우위 노하우와 자원능력이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지국 시장에 관한 전문지식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학습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국제화단계이론에 의하면 직·간접수출과 국제기업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Johanson and Vahlne, 1977, 1990; Pla-Barber, 2001). 따라서 현지국의 사업경험도가 높을수록 100%투자 유형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Pla-Barber, 2001). 현지국 시장에 관한 전문지식에 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지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사업경험(IEXland)”과 “해외법인의 사업년수(AGEAE)”의 관측변수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Hennart, 1991; Cleeve, 1997). 위의 두가지 관측변수는 다국적기업의 국제화단계모델에서 인용되는 “establishment

chain” 이론으로 현지국의 사업경험의 축적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100%투자 유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Swoboda 2002). 관측변수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경험(iexmulti)”은 한 국가에서의 사업경험보다는 다수의 국가에서의 사업경험을 측정하였다.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경험은 다국적기업의 국제화단계모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문화가 다른 특정국가에서의 사업경험과 전문지식을 다른 국가의 시장진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Organizational Capabilities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Johanson and Vahlne, 1990; Erramilli, 1991; Benito, 1996; Brouthers and Brouthers, 2003). 따라서 위의 두 변수는 “일반적인 국제사업경험(IEXallg)”과 “수출빈도(EXPORT)”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IEXallg 관측변수 측정은 특정국가에서의 사업경험과 일반적인 국제사업경험을 동시에 포함하였다(Fladmoe and Jacque, 1995; Benito, 1996; Contractor and Kundu, 1998a), 일반적으로 현지국 사업경험은 국제사업경험의 평가척도로 활용되며 현지국의 수출경험(EXPORT)으로 측정하였다(Chang and Rosenzweig, 2001; Benito, 1996; Delios and Beamish, 1999; Pak and Park, 2004). 수출빈도(전체매출액의 수출비중)는 일반적인 국제사업경험의 평가척도로 Uppsala-Model의 다국적기업의 국제화단계모델 설명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Chang and Rosenzweig, 2001).

③ 모기업의 사업다각화 정도(DIVERMC): 사업다각화는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수의 시장에 비교적 적은 자원을 분포하여 투입하는 전략이다(Gannon, 1993). 따라서 조직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사업다각화는 기업내부화와 반대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집중화전략은 기업거래내부화 전략을 통해서 기업특유의 지식과 노하우를 개발/축적하는 것으로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핵심자원과 능력이 기업내부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다각화는 협력파트너의 전문지식의 학습 및 이전이 가능한 국제기업협력을 통해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Chang and Rosenzweig, 2001).

3) 거래특수요소

① 제품 국제다각화(DIVERE): 해외법인과 모기업 간의 사업연계성의 밀접도를 분석하는 평가기준으로 제품의 국제다각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Pak and Park 2004). 해외법인의 사업분야가 모기업과 다른 경우 해외법인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조달, 유통망 구축 등의 경영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Chang and Rosenzweig, 2001; Pak and Park, 2004), 이러한 경우 국제기업협력이 가장 효율적인 해외시장진입 및 공략 유형으로 분석되었다(Cleeve 1997; Hennart and Larimo, 1998). Hennart(1991)의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현상을 필요한 경영 인프라 및 자원에 관한 시장진입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생산)요소 특수성(SPECIF):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특수성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관한 이론적 설명의 핵심내용이며 매우 강한 생산요소 특수성은 시장진입장벽을 의미하고 결론적으로 기업의 거래내부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Williamson, 1985; Klein et al., 1990). 따라서 생

산요소 특수성은 100%투자 유형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참고문헌에서 고찰되고 있다.

③ 상표자산 특수성(ADV): 상표자산 특수성(*brand name asset specificity*)은 거래 특수성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인한 기업의 Goodwill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국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현지 마케팅중심의 기업경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ontractor, 1990). 그 이유는 국제기업협력의 경우 현지국 파트너기업은 자사제품의 기술 개발보다는 해외파트너 기업의 상표지명도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free riding”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해외파트너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국 기업에 대한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자사의 상표보호를 위한 기업내부화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고찰되었다(Caves, 1982; Hennart, 1991; Erramilli et al., 1997; Deng, 2003).

④ R&D 집중도(RND):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업내부화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을 선호하는 기업은 R&D 중심의 기업경영방식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Caves, 1982; Contractor, 1990). Hymer(1960)의 독점적 우위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R&D 중심의 경영방식이 매출액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Singh and Kogut, 1989; Brouthers, 2002; Yiu and Makino, 2002). 국제기업협력을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의 경우 협력파트너의 기회주의 행동으로 인한 기술유출의 위험성 통제를 위한 비용발생 문제 때문에 기업내부화를 통한 시장진입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ingh and Kogut 1989; Ekeledo and Sivakumar, 1998). Contractor(199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우 높은 R&D 중심의 기업경영방식은 다양한 기술혁신 경영전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기업협력을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이 효율적인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Gomes-Casseres(1989, 1990)의 연구에서도 매우 높은 R&D 중심의 기업경영방식은 파트너기업의 노하우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작법인을 통한 시장진입유형이 효율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Kogut and Singh, 1988; Hennart and Larimo, 1998).

⑤ 자본투입도(KAPINT):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내부거래화 진입유형을 통한 해외시장진입은 높은 비용발생과 자본투입의 원인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에 의하면 기업내부거래화를 회피하는 것이 자본집중도를 저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논의하고 있다(Chen and Hu, 2002). 또한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는 높은 자본집중도가 100%투자 유형의 비용상승 원인이며 기업내부거래화를 회피하는 원인이다(Erramilli and Rao, 1993). 따라서 국제기업협력을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이 기업의 자원절약 효과와 현지국에서의 경영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해외시장진입유형으로 고찰되었다(Kutschker and Moesslang, 1996). 국제기업협력을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은 현지국에서의 자본투자가 높을수록 경영위험을 협력파트너와 분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pekman et al., 1998).

⑥ 해외법인의 규모(ABSASIZ, RELASIZ): 일반적으로 해외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관리 복잡성, 기업소유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경영위험의 최소화 및 분산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고찰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외법인의 규모는 해외파트너 기업 선택에 관한 전략수립과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ingh and Kogut, 1989; Hennart, 1991).

Hennart(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기업과 비교한 해외법인의 상대적인 규모의 크기가 해외시장진입 유형 결정요인 설명에 자주 인용되며 해외법인의 상대적인 규모가 클수록 모기업의 통제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거래내부화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Gomes-Casseres, 1990; Hill et al., 1990; Deng, 2003).

⑦ 자원 활용가능성(RESOURCE): 자원은 해외시장진입유형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요소로 분류되며 주로 현지국의 특화된 자원의 활용가능성에 관하여 연구논점을 두고 있다(Gomes-Casseres, 1990; Shan, 1991; Sarkar and Cavusgil, 1996). 일반적으로 선발주자의 이점(First-Mover-Advantages)이론과 함께 선발시장진입의 장점인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의 활용가능성을 해외시장진입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Hennart and Larimo, 1998). 따라서 현지국 파트너기업이 소유한 자원 활용가능성은 국제기업협력을 통한 해외시장진입의 장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Ⅲ. 연구모형 및 실증분석

1. 연구모형

57개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국제기업협력(=0), 100%투자(=1)의 해외시장진입유형과 유형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multi binary logistics regression)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57개 선행연구결과를 통합(aggregation)하여 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활용한 효과크기(effect size; treatment effect)를 계산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메타분석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효과크기는 로그승산비(log odds ratio)를 설명하는 회귀계수 B로 표현하였으며 $[\exp(B)]$ 는 발생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승산비(odds ratio)로 표현하였다(Gatignon and Anderson, 1988; Kogut and Singh, 1988; Erramilli and Rao, 1993; Gannon, 1993; Hildebrandt and Weiss, 1997). 또한 실증분석에 의해서 도출된 회귀계수 값이 정(positive; +)의 상관관계일 경우 다국적기업은 100%투자(=1, 기업거래내부화) 해외시장진입유형을 선호할 것이며 부(negative; -)의 상관관계일 경우 국제기업협력(=0)을 선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메타분석 참고문헌에 의하면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에서 변수들의 표준화 평균차를 활용하여 측정된 효과크기를 통합하는 것은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의미함으로 부적절한 통계처리방법으로 지적하고 있다(Lipsey and Wilson, 2001). 위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1차 연구(primary analysis, 선행연구)의 측정값을 활용한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수립하고자 한다. 1차 연구에서 계산된 대부분의 측정값은 다변량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되었다. 위에서 논의된 통계처리방법이 부적절하다면 본 연구를

위한 메타분석 연구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다른 연구의 경우도 1차 연구와 동일한 통계 분석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다수의 국제경영 연구논문과 참고문헌에서는 다변량분석으로 측정된 상관계수를 가설 설정 및 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Peterso and Brown(2005)의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의 베타상관계수(Beta Correlation Coefficient)와 선형상관계수(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간에 매우 높은 선형(linear)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위의 연구결과는 메타분석을 활용한 효과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1차 연구의 서로 상이한 상관계수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에 의하면 메타분석의 활용 전제조건은 1차 연구에서 다변량분석 기법으로 측정된 효과크기 간에 이질성(homogeneity)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Lipsey and Wilson, 2001). 따라서 1차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 간의 이질성을 분석한 결과 총 26개 회귀변수 중에서 2개 변수(IEXallg; CONC)가 서로 강한 이질성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어 메타분석을 위한 변수통합(aggregation)에서 제거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분석기법과 단계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1차 연구에서 계산된 측정값들의 분포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연구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에 Vote-Countings 기법²⁾을 적용하였다. 1차 연구에서 계산된 측정값들을 통합(aggregation)하기 위해서 Cohen and Ebeling(1980)과 Kulik and Cohen(1980)의 기법을 활용하여 모든 상관계수를 코딩하고 일부 1차 연구에서 활용된 4척도 설문평가를 6척도로 수정하였다.³⁾ 위와 같은 6척도 구분법은 Kulik and Cohen(1980)에 의해서 수정 보완된 Vote-Countings(VC) 척도법을 기초로 하며 1차 연구에서 누락된 코딩값을 산출하기에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변수별로 척도의 코딩평균값을 산출하여 누락된 코딩값으로 활용하였다(표 2 참고). Vote-Countings 기법은 1차 연구에서 활용된 샘플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Chetty and Hamilton, 1993). 두 번째 단계는 1차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를 각 연구분야 별로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샘플크기의 간접영향도를 반영하였으며 효과크기의 표준편차와 표준효과크기 산출이 가능하도록 변수의 내용을 고려하여 통합하였다(Fricke and Treinies, 1985; Shadish and Haddock, 1994; Lipsey and Wilson, 2001). 또한 각 연구의 변수를 고찰하여 서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변수들을 통합하여 메타분석에서 측정되는 효과크기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1차 연구의 효과크기 통합방법에는 두 가지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s)은 모든 1차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는 동일하며 크기의 차이는 확률적 오차(Random Error)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Vote-Countings 기법은 1차 연구에서 측정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33% 이상 유의수준의 값을 정(+)과 부(-)의 값으로 개수를 분류하였다.

3) Cohen and Ebeling(1980)과 Kulik and Cohen(1980)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Vote-Countings 기법을 활용하여 1차 연구의 4척도를 다음과 같이 6척도로 변환하였다.

1차 연구결과	부(-)의 유의수준 p<0.01	부(-)의 유의수준 0.01<p<0.05	부(-)의 유의수준 p>0.05	정(+)의 유의수준 p>0.05	정(+)의 유의수준 0.01<p<0.05	정(+)의 유의수준 p<0.01
Vote-Counting 척도	-2.5	-1.5	-0.5	0.5	1.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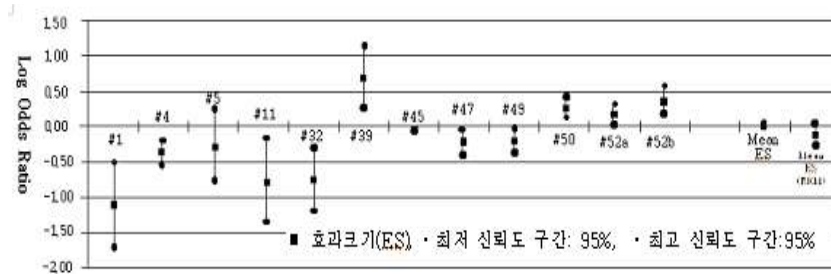
(Cooper and Hedges, 1994a). 이와는 반대로 무작위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은 모든 1차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는 확률적오차(Random Error)에 의한 것이며 공동요소의 영향정도에 따라서 효과크기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에 가까워진다고 논의하고 있다(Hedges, 1994; Lipsey and Wilson, 2001; Eisend, 2004). 고정효과모형과 무작위효과모형 간의 정확한 선택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Shadish and Haddock, 1994; Coopers and Hedges, 1994a). 본 메타분석은 전체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효과크기를 측정하였으며 1차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 간의 동질성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메타분석에서 신뢰성있는 효과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1차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 간의 동질성 조건의 충족여부를 Q-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Lipsey and Wilson, 2001). 일반적으로 동질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작위효과모형을 선택해야한다. 이러한 방법은 메타분석을 통한 효과크기의 분석을 위한 보수적인 방법으로 개별 효과크기의 가중치를 변경하여 동질성조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Shadish and Haddock, 1994; Cooper and Hedges, 1994a; Hedges and Vevea, 1998; Lipsey and Wilson, 2001; Witte and Kuss,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를 통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무작위효과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가 <표 2>에 설명되었다. 본 메타분석은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와 SPSS 16을 활용하여 측정값을 분석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1) 현지국 특수요소

① 투자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차이(cult):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차이는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요소에 관한 1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실증 분석된 변수이다. <표 2>의 변수의 영향도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VC-척도 평균값과 통합된 효과크기 분석기법에 의한 결과가 매우 차별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합된 효과크기의 분석기법에 의한 결과는 12개의 변수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메타분석은 1차 연구에서 95% 신뢰도구간으로 측정된 결과를 Forrest Plot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림 1의 Forrest Plot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통합된 효과크기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고찰되었다(Mean ES (REM)). 결론적으로 Q-검증을 실시하여 1차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 간에 이질성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무작위효과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효과크기를 통합하였다.



[그림 1] 문화차이 변수의 표준화 효과크기와 신뢰구간

② 현지국 국가위험도(RISK): 총 23개 1차 연구에서 국가위험도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메타분석기법을 활용한 분석결과 변수와 효과 크기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에 의하면 5개의 1차 연구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었으나 본 메타분석에서는 VC-척도 평균값과 통합된 효과크기 분석기법에서 동일하게 부(-)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었다. 즉, 현지국의 국가위험도가 높을수록 다국적기업은 국제기업협력의 해외시장진입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현지국의 국민소득 수준(GNPPP):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고찰과 1차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두형태의 뚜렷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4개의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와 2개의 매우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었다. 두 종류의 메타분석기법에 의해 분석된 본 연구결과도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1차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고찰해 보면 전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통합된 효과크기의 분석결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지국의 국민소득수준과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은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현지국의 시장규모(MSIZE): 총 7개 1차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지국의 시장규모는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된 것과는 전혀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4개의 1차 연구결과에서는 매우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으며 단지 1개의 연구결과가 정(+)의 상관관계이지만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메타분석기법에 의한 분석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1차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지국의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질수록 다국적기업은 국제기업협력의 해외시장진입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시장규모가 클수록 시장진입에 투입되는 자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국제기업협력을 통해서 현지국기업의 자원과 사업경험을 공유하여 사업위험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분석결과

영향요소	결정요소에 관한 이론분석 (연구가설)				연구결과							연구결과 해석	
	TAK	OC	RBV	기타	-2,5	-1,5	-0,5	0,5	1,5	2,5	n	VC-척도 평균값 분석기법	통합된 표준 효과크기(ES) 분석기법, n/N 동질성 oder 이질성
현지국 특수요소													
CULT	+/-	+/-			7	4	9	8	9	4	29	-0,43 n.s.	-0,09(n.s.),12/8.892, 이질성
RISK	+		-		11	3	4	4	0	1	23	-1,28***	-0,35*, 8/6.048, 동질성
GNPPP	-	-		높은 시장매력도 +	2		2	1		4	9	0,50 n.s.	0,06 (n.s.), 4/1.857, 이질성
MSIZE	+			높은 시장매력도 +	4		2	1			7	-1,50*	-0,17*, 5/5.982, 동질성
MGROWTH			-	낮은 경쟁도 +	2	1	4	2	2	1	12	-0,17 n.s.	-0,11*, 6/3.979, 동질성
CONC	+						2	3	1	2	8	0,88†	0,12 (n.s.), 4/1.833, 이질성
RESTRICT				신체도이론 -	12		4	1	1		18	-1,67***	-0,26*, 13/11.467, 이질성
투자국 특수요소													
PDI				행동이론 +			1	1	3	1	6	1,17*	0,21*, 5/836, 동질성
UAI				행동이론 +/-		1	1	2		1	5	0,30 n.s.	0,31 (n.s.), 3/555, 이질성
기업 특수요소													
GRsales			+		3		3	2		1	9	-0,61 n.s.	0,00 (n.s.), 4/3.187, 동질성
GRempl			+		2	1	2	4	1	2	12	0,08 n.s.	0,26*, 6/1.294, 동질성
GRassets			+		1		2	2			5	0,50 n.s.	n.a.
IEXland			+	국제화단계모 델 +		1	1	10	3	6	21	1,07***	0,21*, 9/3.556, 동질성
AGEAE			+	국제화단계모 델 +			2	2	1		5	0,30 n.s.	n.a.
IEXmult			+		2		6		3	2	13	0,12 n.s.	0,03 (n.s.), 8/8.684, 이질성
IEXallg			+		1	1	2	5	1	3	13	0,50 n.s.	-0,10 (n.s.), 5/1.203, 이질성
EXPORT			+	국제화단계모 델 +			1		2	4	7	1,79**	0,17*, 3/4.604, 동질성
DIVERMG			-	기업전략 -			3	2			5	-0,10 n.s.	0,01 (n.s.), 4/2.208, 동질성

거래 특수요소													
DIVERAE		-		기업전략 -	6	1	5	5			17	-0,97**	-0,08*, 4/6.075, 동질성
SPECIF	+				1		1	2	2	2	8	0,75 n.s.	0,20*, 4/654, 동질성
ADV	+	+			1	1	4	6	3	7	22	0,86*	0,19*, 7/7.266, 동질성
RND	+	+/-			3		6	10	2	6	27	0,46 n.s.	0,06(n.s.), 13/11.291, 이질성
KAPINT	-				1	1	2	1			5	-0,90 n.s.	n.a.
ABSAESIZ				기업전략 +	2	1	3	1	2		9	-0,50 n.s.	n.a.
RELAESIZ				기업전략 +	1	1	2	4	1	1	10	0,10 n.s.	n.a.
RESOURCE				기업전략 -	3	4	3				10	-1,50***	-0,15*, 3/4.603, 동질성

* 측정값이 높을수록 100%투자 유형을 선호. * 유의수준: †: 0,1; *: 0,05, **: 0,01, ***: 0,001, n.s.: 유의수준이 없음, n.a.: 측정 불가능

⑤ 현지국의 시장성장도(MGROWTH):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된 것처럼 1차 연구 결과가 이질적인 것으로 고찰되었다. 7개 1차 연구 결과가 부(-)의 상관관계이며 5개의 연구결과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뚜렷한 영향관계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VC-척도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부(-)의 상관관계이지만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된 효과크기 메타분석기법에 의한 결과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를 제시하여 1차 연구결과와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지국의 시장성장도가 높을수록 다국적기업은 국제기업협력을 통해서 현지국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⑥ 현지국 주력업종의 경쟁현황(conc): 총 8개의 1차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지국 주력업종의 경쟁현황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의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VC-척도 평균값 메타분석기법에 의해 계산된 측정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의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그림 5의 분석결과에서도 변수 CONC의 신뢰도 구간이 다른 변수와 비교하여 매우 넓게 분포되어 유의적인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지국 주력업종의 경쟁현황이 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미치는 뚜렷한 상관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⑦ 다국적기업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규제(RESTRIC): 현지국 정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할수록 100%투자를 회피하고 국제기업협력의 시장진입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총 18개 1차 연구결과에서 분석되었으며 12개 연구결과는 100%투자를 매우 강하게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Brouthers and Brouthers and Werner(2003)의 연구결과가 유일하게 100%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그 이유는 EU 통합과정에서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시장진입

장벽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지국 정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할수록 국제기업협력의 시장진입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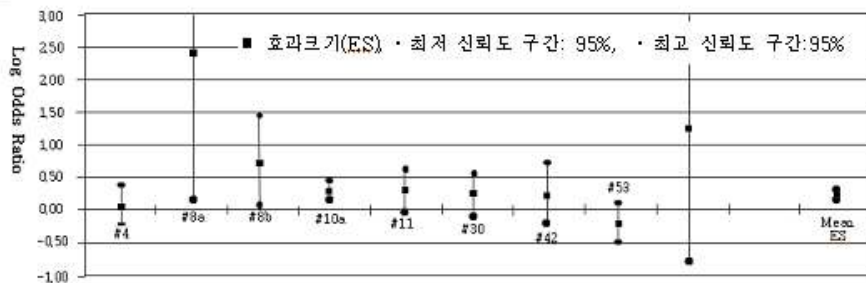
2) 투자국의 특수요소

① 권력과의 거리(power distance index, PDI): 1차 연구결과에 의하면 권력과의 거리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두 종류의 메타분석기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투자국과 비교하여 현지국의 PDI 지수가 높을수록 다국적기업은 100%투자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불확실성 회피도(UAI): 불확실성 회피도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매우 이질적이며 상호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1차 연구와 본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3) 기업특유의 결정요소

① 기업의 규모(GRsales, GRassets, GRempl):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규모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의 상관관계에 관한 총 9개 1차 연구와 기업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총 5개 연구결과는 뚜렷한 영향관계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1차 연구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에 의하면 기업규모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은 부(-)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의 메타분석과 1차 연구의 분석결과 모두가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결론적으로 매출액과 자산 기준의 다국적기업 규모는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규모는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총 12 개의 1차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도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100%투자 유형을 통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분석되었다.



[그림 2] 변수 “현지국의 사업경험”의 표준화 효과요소와 신뢰구간

② 국제사업경험도(IEXland, AGEAE, IEXmult, IEXallg, EXPORT): 현지국의 사업경험과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의 영향관계에 관한 총 21개 1차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메타분석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21개 1차 연구결과 중에서 2개의 연구결과가 부(-)의 상관관계이며 1개의 1차 연구결과가 유의적인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나머지 19개 1차 연구결과는 정(+)의 상관관계이며 본 연구의 VC-척도 평균값 메타분석기법에 의해 계산된 측정값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의적인 수준인 것으로 고찰되었다. 총 21개 1차 연구 중에서 9개의 연구가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 활용되었다(그림 2 참고). Q-검증결과 총 9개 1차 연구결과가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고정효과 모형으로 계산된 메타분석결과가 정(+)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의 동질성으로 인해 신뢰도구간이 통합된 효과크기의 평균값(Mean ES) 만큼 축소되었으며 측정값들 간의 밀집도(동질성)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현지국에 사업경험도가 높을수록 100%투자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분석되었다. 또한 그림 2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처럼 1차 연구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들이 메타분석을 통해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③ 해외법인의 사업년수(AGEAE)는 1차 연구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되었으나 메타분석결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즉, 해외법인의 사업년수가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경험(iexmulti)은 총 13개 1차 연구에서 분석되었으나 8개의 연구결과는 부(-)의 상관관계, 5개의 연구결과가 정(+)의 상관관계이며 모두 유의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즉, 다국적기업의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경험은 100%투자 유형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일반적인 국제사업경험(IEXallg)에 관한 1차 연구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총 13개 연구결과 중에서 4개 연구는 부(-)의 상관관계, 8개는 정(+)의 상관관계이며 7개 연구결과가 유의적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는 5개 1차 연구결과가 통합되었으며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인 국제사업경험(IEXallg),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경험(iexmulti)과 동일한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된 변수 “수출빈도(EXPORT)”는 총 7개 1차 연구결과에서 뚜렷한 영향관계를 제시했으며 본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정(+)의 유의적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총 3개 1차 연구결과가 본 메타분석에 활용되었으며 VC-척도 분석기법과 통합적 효과크기법에서 측정된 효과크기 값은 모두 정(+)의 상관관계이며 유의적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현지국에 대한 수출경험이 높을수록 100%투자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⑤ 모기업의 사업다각화 정도: 총 5개 1차 연구에서 뚜렷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과 유의적인 수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사업다각화정도는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거래 특수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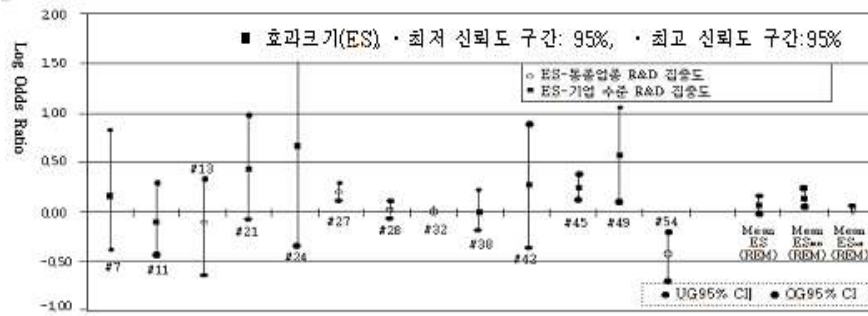
① 제품 국제다각화(DIVERAE): 총 17개 1차 연구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유의적 상관관계는 없지만 12개 연구결과가 부(-)의 관계, 5개는 정(+)의 관계이며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서도 1차 연구결과와 유사한 부(-)의 유의수준이 증명되었다. 종합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법인은 모기업과 서로 상이한 사업분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제기업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② (생산)요소 특수성(specif): 전체적으로 (생산)요소 특수성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총 8개의 1차 연구 분석결과 평가되었다. 본 메타분석의 VC-척도 분석결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합적 효과크기 분석결과는 정(+)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기업은 (생산)요소 특수성이 높을수록 100%투자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상표자산 특수성(ADV): 총 22개 1차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표자산 특수성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의 VC-척도 평균값과 통합 효과크기의 메타분석기법에 의해 계산된 측정값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의적인 수준인 것으로 고찰되었다. 즉, 다국적기업의 상표자산 가치가 높을수록 100%투자 유형의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차 연구에서 상표자산 가치는 전체기업의 수준보다는 해외법인, 다국적기업의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되었다.

④ R&D 집중도(RND): 다국적기업의 R&D 집중도는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변수 “문화적인 차이”와 함께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이다. 1차 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총 27개 연구 중에서 18개 연구결과가 정(+)의 상관관계이지만 유의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 13개 1차 연구를 분석한 본 메타분석의 결과에도 R&D 집중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유의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높은 R&D 집중도가 100%투자 유형 결정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효과크기의 이질성 때문이며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Delios and Beamish(1999)의 연구에 의하면 R&D 집중도는 동종업종의 R&D 집중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메타분석에서 분석된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어떠한 근거에서 도출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R&D 집중도를 동종업종(industry-level)과 기업수준(firm-level)에서 각각 분류하여 Q-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효과크기 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그림 3에서도 검증이 가능하다. 즉, 기업수준과 동종업종 수준에서 각각 효과크기 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으며 동종업종 수준에서의 동질성이 기업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며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소유한 2개 기업의 이질성이 동종업종에 속하며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소유한 2개 기업의 이질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후속연구에서는 동종업종에 R&D 집중도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변수 “R&D 집중도”의 표준화 효과요소와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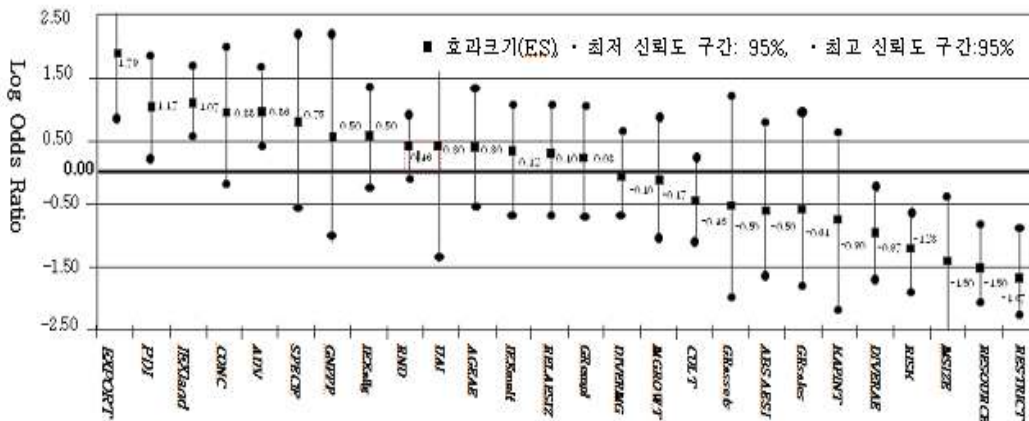
⑤ 자본투입도(KAPINT): 자본투입도에 관한 총 5개 1차 연구결과는 전체적으로 부(-)의 상관관계이며 유의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2개의 1차 연구결과가 유의수준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투입도가 기업내부화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증명하지 못하였다. Anderson and Gatignon(198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본투입도가 높을수록 투자된 자본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서 비교적 장기적으로 파트너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⑥ 해외법인의 규모(ABSAESIZ, RELAESIZ): 매출액 기준과 모기업 대비 해외법인의 규모와 기업내부화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에 관한 연구는 각 9개, 10개 1차 연구에서 실행되었으며 매우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VC-척도 평균값과 통합 효과크기의 메타분석기법에 의해 계산된 측정값은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해외법인의 규모와 다국적기업의 기업내부화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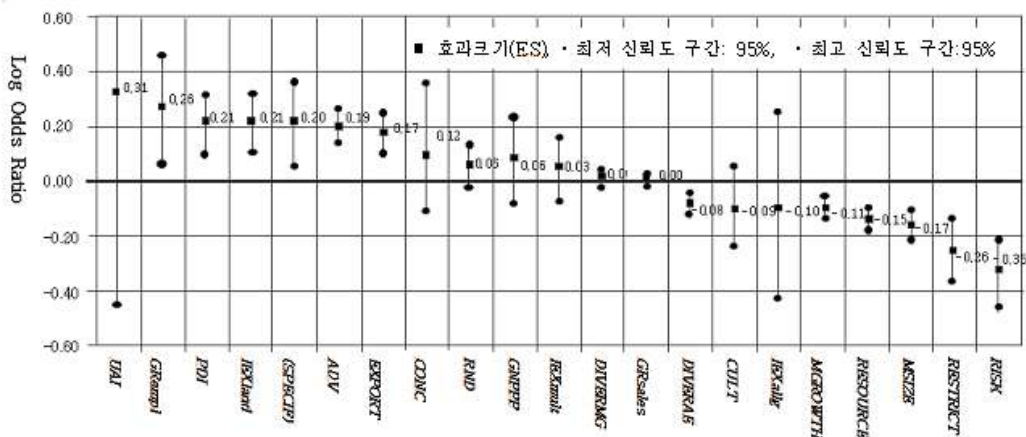
⑦ 자원 활용가능성(RESOURCE): 현지국의 자원활용 가능성은 총 10개 1차 연구에서 분석되었으며 모든 연구결과가 100%투자 유형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메타분석에 의한 측정값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여 현지국의 자원활용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국적기업은 국제기업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1차 연구에서 최소 5회 이상 연구에 활용된 변수 26개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행한 결과 11개 변수가 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 유형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11개 변수를 <표 2>에서 분류된 그룹별로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현지국 특수요소에 관한 연구는 현지국의 국가위험도, 시장규모, 정부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뢰도 높은 영향도가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메타분석결과에 의하면 다국적기업의 100%투자 유형결정에 중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기업의 규모(GRempl), 권력과의 거리(PDI), 다국적기업의 현지국 사업경험 (IEXland), 다국

적기업의 상표자산 특수성(ADV), 다국적기업의 수출빈도(EXPORT)의 요소가 정(+)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현지국 국가위험도 (RISK), 현지국 정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RESTRIC), 현지국 시장크기(MSIZE), 현지국의 자원활용 가능성은 (RESOURCE), 현지국의 시장성장도(MGROWTH), 제품 국제다각화(DIVERAE)는 다국적기업의 100%투자 유형결정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VC-척도 평균값(그림 4)과 통합 효과크기(그림 5) 두 종류의 메타분석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두 종류의 메타분석 결과 간의 상관계수는 0,879로 측정되었으며 서로 상이한 1차 연구의 샘플크기와 분석방법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측정값의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4] 메타분석에 활용된 모든변수의 VC-척도 평균값과 신뢰도 구간



[그림 5] 메타분석에 활용된 모든변수의 통합 효과크기와 신뢰도 구간

IV. 결 론

본 메타분석에서는 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 유형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고찰하였다. 신제도이론과 같은 다수의 설명이론이 현재까지 실증분석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향후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메타분석에서 고찰된 설명이론을 연구결과와 접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기업전략이론에서 논의된 것처럼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전략과 전략수행을 위한 해외법인의 역할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국제화단계모델에서 고찰된 것처럼 현지국의 사업경험도가 높아질수록 다국적기업은 기업내부화(100%투자)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을 선호하며 자원기반이론에서 논의된 기업의 소유자원과 조직학습이론의 기업학습능력은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래비용이론과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현지국의 국가 위험도(RISK), 현지국의 시장성장도(MGROWTH), 현지국의 자원 활용가능성(RESOURCE), 현지국의 시장크기(MSIZE)는 국제기업협력의 시장진입유형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이 실증분석을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에 관한 설명이론의 검증이 1차 연구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후속연구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특별히 기업전략이론은 후속연구에서 더욱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특정한 기업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해외시장 진입유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현재까지 매우 미흡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Pla-Barber(2001)의 연구에 의하면 해외시장진입유형은 고전이론에서 논의된 비용절감의 관점보다는 기업의 해외시장진입 목적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외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기업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 유형의 결정요소를 현지국의 상황에 접목하여 해외사업의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57개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64개 관측변수 중에서 26개를 통합한 본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의하면 6개 변수가 100%투자를 통한 해외시장진입유형 결정과 정(+)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8개 변수가 국제기업협력의 유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Hill et al., 1992; Roberts and Greenwood, 1997; Madhok, 2002; Malhotra et al., 2004).

참고문헌에서는 메타분석의 핵심 문제점을 상호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분석결과의 통합(예: 사과와 오렌지의 문제점 비교)과 'file-drawer-Problem"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Fricke and Treinies, 1985; Wolf, 1986; Lipsey and Wilson, 2001; Eisend, 2004). 위 문제점에 관하여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값을 다양한 기법으로 통합을 한다. 본 메타분석에서는 1차 연구에서 서로 상이한 독립변수에서 측정된 종속변수 값(국제기업협력과 100%투자 유형)을 메타분석을 위해서 통합(aggregation)하였다. 통합 전에 종속변수 간의 검증된 동질성을 기초로 1차 연구의 다양한 분석결과의 통합이 가능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된 File-Drawer-

Problem(publication bias)은 일반적으로 연구논문의 공개는 분석결과가 유의적인 수준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메타분석의 효과 크기 측정값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메타분석에서 유의적인 수준을 갖는 11개 1차 연구의 종속변수는 Funnel-Plots 통계기법으로 분석되었다. X-축은 1차 연구의 종속변수가 메타분석의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의 크기로 설정하였으며 Y-축은 효과크기의 값으로 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1차 연구논문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publication bias의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ipsey and Wilson(2001)의 연구결과에서 다변량회귀분석으로 측정된 효과 크기의 통합에 관한 메타분석기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의 통합기법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활용된 회귀변수의 개수가 메타분석의 효과크기에 구조적인 영향도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1차 연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개별 영향도를 기준으로 결정요소를 분석하였으나 독립변수들의 상호 인과관계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도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의 메타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따라서 복합적효과크기의 측정이 가능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과 같은 통계기법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⁴⁾

- 반병길 · 이인세, "글로벌마케팅", 2008, 박영사
 이장로, "국제마케팅", 2003, 무역경영사,
 조동성,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2004, 서울경제경영
 김광수 · 정동섭 · 이수형 · 김광수, "국제경영", 2005, 박영사
 장세진,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영전략", 2007, 박영사
 Agarwal, S., "Socio-cultural distance and the choice of joint ventures: a contingency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2(2), 1994, pp. 63-80. #1
 Agarwal, S. and Ramaswami, S., "Choice of foreign market entry mode: Impact of ownership, location and internalization factor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3(1), 2002. pp. 517-551. #2
 Anderson, E. and Gatignon, H., "Modes of Entry: A Transactions Cost Analysis and Proposi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7, Fall, 1986, pp. 1-26. #3
 Barkema, H. G. and Vermeulen, F., "International expansion through start-up or acquisition: A learning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1), 1998, pp. 7-26. #4

4)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 활용된 1차 연구목록은 #번호로 표시하였다.

- Benito, G., "Ownership structures of Norwegian foreign subsidiaries in manufacturing,"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10(2), 1966, pp. 157-198. #5
- Birkinshaw, J. and Morisson, A., "Configuration of strategies and structure in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4), 1995, pp. 729-753.
- Brouthers, K., "Institutional, cultural and transaction cost influences on entry mode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3(2), 2002, pp. 203-221. #6
- Brouthers, K. and Brouthers, L., "Why Service and Manufacturing Entry Mode Choices Differ: The Influence of Transaction Cost Factors, risk and Tru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0(5), 2003, pp. 1179-1204. #7
- Brouthers, L., Brouthers, K. and Werner, S.,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entry mode choice and satisfaction with EC-MNC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1(3), 2000, pp. 183-195. #8
- Brouthers, K., Brouthers, L. and Werner, S., "Transaction cost-enhanced entry mode choices and firm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2), 2003, pp. 1239-1248. #9
- Buckley, P. and Casson, M., "Analysing foreign market entry strategy: extending the internalisation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9(3), pp. 539-561.
- Caves, R. 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Oxford/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Chang, S.-J. and Rosenzweig, P., "The choice of entry mode in sequential foreign direct invest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2001, pp. 747-776. #10
- Chen, H. and Hu, M.,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entry mode and its impact on performanc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1, 2002, pp. 193-210. #11
- Chen, J., Hu, M. and Hu, P. "Ownership strategy of multinationals from ASEAN: The case of their investment in sino-foreign joint ventur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42(3), 2002, pp. 309-326. #12
- Chetty, S. and Hamilton, R. T., "Firm-level determinants of export performance: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0(3), 1993, pp. 26-34.
- Cleeve, E., "The motives for joint ventures: a transaction cost analysis of Japanese MNEs in the U.K.,"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4(1), 1997, pp. 31-43. #13
- Coase, R.,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16), November 1937, pp. 386-405.
- Contractor, F., "Contractual and cooperative forms of international bus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of modal choice,"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 30, Nr. 1, 1990, pp. 31-54.
- Contractor, F. and Kundu, S., "Franchising versus company-run operations: Modal choice in the global hotel

- sector,”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Vol. 6, Nr. 2, 1998a, pp. 28–53. #14
- Contractor, F. J. and Kundu, S. K., “Modal choice in a world of alliances: Analyzing organizational forms in the international hotel sector, i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9, Nr. 2, 1998b, pp. 325–357. #15
- Cooper, H. and Hedges, L.,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research synthesis,” in: Cooper, H.; Hedges, L. (Hrsg.): *Th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94a, pp. 521–529.
- Cooper, H. and Hedges, L., “Research synthesis as a scientific enterprise,” in: Cooper, H.; Hedges, L. (Hrsg.): *Th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4b, pp. 3–14.
- Davidson, W.H. and McFetridge, D., “Key characteristics in the choice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i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32, Nr. 3, 1984, pp. 5–21. #16
- Delios, A. and Beamish, P. W., “Ownership strategy of Japanese firms: Transactional, institutional, and experience influen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0, 1999, pp. 915–933. #17
- Delios, A. and Henisz, W., “Japanese firms’ investment strategies in emerging econom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3, Nr. 3, 2000, pp. 305–323. #18
- Deng, P., “Determinants of Full-control mode in China: An integrative approach,” *American Business Review*, 2003, Nr. 1, 2003, pp. 113–123.
- DiMaggio, P. J. and Powell, W.W.,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8, 1983, pp. 147–160.
- Dunning, J., “Reappraising the eclectic paradigm in an age of alliance capitalis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6, Nr. 3, 1995, pp. 461–492.
- Dwyer, R. and Oh, S., A., “Transaction Cost Perspective on Vertical Contractual Structure and Interchannel Competitive Strategies,” *Journal of Marketing*, Vol. 52, April, 1988, pp. 21–34.
- Eisend, M., “Metaanalyse – Einführung und kritische Diskussion,” *Diskussionsbeiträge des Fachbereichs Wirtschaftswissenschaft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Nr. 2004/8, Berlin.
- Ekeledo, I. and Sivakumar, K., “Foreign market entry mode choice of service firms: A contingency perspectiv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6, Nr. 4, 1998, pp. 274–292.
- Ekeledo, I. and Sivakumar, K., “International market entry mode strategies of manufacturing firms and service firm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 21, Nr. 1, 2004, pp. 68–101. #19
- Elango, B. and Sambharya, R. B., “The influence of industry structure on the entry mode choice of overseas entran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10, Nr. 1, 2004, pp. 107–124. #20

- Erramilli, K., "Nationality and subsidiary ownership pattern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7, Nr. 2, 1966, pp. 225-248. #21
- Erramilli, K. and Rao, C. P., "Service Firms' International Entry-Mode Choice: A modified Transaction-Cost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Marketing*, Vol. 57, 1993, pp. 19-38. #22
- Erramilli, K., Agarwal, S. and Dev, C., "Choice between non-equity entry modes: an organizational capability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3, Second Quarter, 2002, pp. 223-242.
- Erramilli, K., Agarwal, S. and Kim, S.-S., "Are firm-specific advantages location-specific too?,"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8, Nr. 4, 1997, pp. 735-757. #23
- Fladmoe-Lindquist, K. and Jacque, L., "Control Modes in International Service Operations: The Propensity to Franchise," *Management Science*, Vol. 41, Nr. 7, 1995, pp. 1238-1249. #24
- Fricke, R. and Treinies, G., "Einführung in die Metaanalyse," Bern u.a.: Verlag Hans Huber, 1985.
- Gannon, M., "Towards a composite theory of foreign market entry mode choice: the role of marketing strategy variables," *Journal of Strategic Marketing*, Vol. 1, 1993, pp. 41-54.
- Gatignon, H. and Anderson, E.,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degree of control over foreign subsidiaries: An empirical test of a transaction cost explanation,"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4, Nr. 2, 1988, pp. 305-336. #25
- Gomes-Casseres, B., "Ownership structures of foreign subsidiari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11, 1989, pp. 1-25. #26
- Gomes-Casseres, B., "Firm ownership preferences and host government restrictions: An integrated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1, Nr. 1, 1990, pp. 1-2. #27
- Hedges, L., "Statistical considerations," Cooper, H.; Hedges, L. (Hrsg.): *Th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4, pp. 29-38.
- Hedges, L. and Vevea, J., "Fixed- and random-effects models in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 3, Nr. 4, 1998, pp. 486-504.
- Hennart, J.-F., "Can the "New Forms of Investment" substitute for the "Old Forms"? A Transaction Costs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ummer, 1989, pp. 211-234.
- Hennart, J.-F., "The transaction costs theory of joint ventures: An empirical study of Japans subsidiaries in the Unites States," *Management Science*, Vol. 37, Nr. 4, 1991, pp. 483-497. #28
- Hennart, J.-F. and Larimo, J., "The impact of culture on the strategy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Does multinational affect ownership deci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9, Nr. 3, 1998, pp. 515-538. #29
- Hennart, J.-F. and Reddy, S., "The choice between mergers/acquisitions and joint ventures: The case of Japanese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8, 1997, pp. 1-12.

#30

Herrmann, P. and Datta, D., "CEO successor characteristics and the choice of foreign market entry mode: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3, Nr. 3, 2002, pp. 551-569.

#31

Hildebrandt, L. and Weiss, C., "Internationale Markteintrittsstrategien und der Transfer von Marketing-Know-how," *Zeitschrift für betriebswirtschaftliche Forschung*, Vol. 49, Nr. 1, 1997, pp. 3-25. #32

Hill, C., Hwang, P. and Kim, W.C., "An eclectic theory of the choice of international entry mod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1, 1990, pp. 117-128.

Johanson, J. and Vahlne, J., "The Internationalisation Process of the Firm: 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Market Commit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8, 1977, pp. 23-32.

Kim, W.C. and Hwang, P., "Global strategy and multinationals' entry mode choi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3, Nr. 1, 1992, pp. 29-54. #33

Klein, S., Frazier, G. and Roth, V., "A Transaction Cost Analysis Model of Channel Integration in International Marke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7, May, 1990, pp. 196-208.

Kogut, B. and Singh, H., "The Effect of National Culture on the Choice of Entry Mod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 1988, pp. 411-432. #34

Kogut, B. and Zander, U., "Knowledge of the firm and the evolutionary theor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4, Nr. 4, 1993, pp. 625-646. #35

Kulik, J.A., Cohen, P.A. and Ebeling, B. J., "Effectiveness of programmed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 2, 1980, pp. 51-64.

Kulik, J. A., Kulik, C.-L. C. and Cohen, P. A., "Effectiveness of computerbased college teaching: A meta-analysis of find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0, 1980, pp. 525-544.

Kumar, V. and Subramaniam, V., "A contingency framework for the mode of entry decision,"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32, Nr. 1, 1997, pp. 53-72.

Kutschker, M. and Mößlang, A., "Kooperation als Mittel der Internationalisierung von Dienstleistungsunternehmen," *Die Betriebswirtschaft*, Vol. 56, Nr. 3, 1996, Vol. pp. 319-337.

Lecraw, D., "Bargaining Power, Ownership, and Profita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5, Spring/Summer, 1984, pp. 27-43.

#36

Lipsey, M. and Wilson, D., "Practical Meta-Analysis," Thousand Oaks/CA u.a.: SAGE Publications, 2001.

Lu, J., "Intra- and Inter-organizational Imitative Behaviour: Institutional Influences on Japanese Firms' Entry

- Mode Choi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3, Nr.1, 2002, pp. 19–37. #37
- Macharzina, K. and Engelhard, J.,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From partist and eclectic approaches to the GAINS paradigm,”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 31, Special Issue, 1991, pp. 23–43.
- Madhok, A., “The nature of multinational firm boundaries: Transaction costs, firm capabilities and foreign market entry mod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7, 1998, pp. 259–290. #38
- Mahnke, V. and Venzin, M.,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Digital Information Good Provider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 43, Nr. 1, Special Issue, 2003, pp. 115–142.
- Makino, S. and Neupert, K., “National culture, transaction costs, and the choice between joint venture and wholly owned subsidiar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1, Nr. 4, 2000, pp. 705–713. #39
- Malhotra, N., Agarwal, J. and Ulgado, F., “Internationalization and Entry Modes: A Multitheoretical Framework and Research Proposi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Vol. 11, Nr. 4, 2004, pp. 1–31.
- Mayrhofer, U.,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igin and uncertainty on the choice between cooperation and merger-acquisition: an analysis of French and German firm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3, 2004, pp. 38–99. #40
- Meyer, K., “Institutions, transaction costs and entry mode choice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2, Nr. 2, 2001, pp. 357–367. #41
- Morschett, D. and Schramm-Klein, H., “Control modes for after-sales service activities in foreign markets,” *Proceedings der 4th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Academy of Management (EURAM)*, St. Andrews, 2004, pp. 1–21. #42
- Padmanabhan, P. and Cho, K., “Decision specific experience in foreign ownership and establishment strategies: Evidence from Japanese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0, Nr. 1, 1999, pp. 25–43. #43
- Pak, Y. and Park, Y.-R., “Global ownership strategy of Japanese multinational enterprises: a test of internalization theory,”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 44, Nr. 1, 2004, pp. 3–21. #44
- Palenzuela, V. A. and Bobillo, A. M., “Transaction costs and bargaining power: Entry mode choice in foreign markets,”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Vol. 7, Nr. 1, 1999, pp. 62–75. #45
- Pan, Y., “Influences on Foreign Equity Ownership Level in Joint Ventures in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7, Nr. 1, 1996, pp. 1–26. #46
- Pan, Y. and Tse, D., “Cooperative strategies between foreign firms in an overseas countr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ecial Issue, 1996, pp. 929–946. #47

- Parkhe, A., "Partner nationality and the structure-performance relationship in strategic alliances," *Organization Science*, Vol. 4, Nr. 2, 1993, pp. 301-324.
- Peterson, R. and Brown, S., "On the use of beta coefficients in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0, Nr. 1, 2005, pp. 175-181.
- Pla-Barber, J., "The internalisation of foreig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activities – New empirical evidence from Spai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0, 2001, pp. 455-474.
- Randøy, T. and Dibrell, C., "How and why Norwegian MNCs commit resources abroad: Beyond choice of entry mode,"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 42, Nr. 2, 2002, pp. 119-140. #48
- Roberts, P.; Greenwood, R., "Integrating transaction cost and institutional theories: Toward a constrainedefficiency framework for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design adop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2, Nr. 2, 1997, pp. 346-373.
- Sarkar, M. and Cavusgil, T., "Trends in international business thought and literature: A Review of international marketing entry mode research: Integration and Synthesis," *The International Executive*, Vol. 38, Nr. 6, 1996, pp. 825-847.
- Shadish, W. and Haddock, K., "Combining estimates of effect size," Cooper, H.; Hedges, L. (Hrsg.): *Th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4, pp. 261-281.
- Shan, W., "Environmental Risks and Joint Venture Sharing Arrang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2, Nr. 4, 1991, pp. 555-578. #49
- Shane, S., "The effect of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ransaction costs on national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for Licensing,"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 32, Nr. 4, 1992, pp. 295-311. #50
- Shane, S., "The effect of national culture on the choice between licensing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5, 1994, pp. 627-642.
- Shi, Y. Z., Ho, P. Y. and Siu, W. S., "Market entry mode selection: The experience of small Honk Kong firms investing in China,"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Vol. 8, Nr. 1, 2001, pp. 19-41. #51
- Singh, H. and Kogut, B., "Industry and Competitive Effects on the Choice of Entry Mode,"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1989, pp. 116-120. #52
- Sun, H., "Entry mod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to China's market: A socioeconom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6, Nr. 5, 1999, pp. 649-659. #53
- Swoboda, B., "Dynamische Prozesse der Internationalisierung," Wiesbaden: Deutscher UniversitätsVerlag.
- Tatoglu, E.; Glaister, K.; Erdal, F. (2003): Determinants of foreign ownership in Turkish manufacturing, in: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1, Nr. 2, 2002, pp. 5-41.
- Tatoglu, E.; Glaister, K.; Erdal, F., "Determinants of foreign ownership in Turkish manufacturing," *Eastern*

-
- European Economics Vol. 41, Nr. 2, 2003, pp. 5–41. View Record in Scopus | Cited By in Scopus (8). #54
- Taylor, C., Zou, S. and Osland, G., “A transaction cost perspective on foreign market entry strategies of US and Japanese firms,”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40, Nr. 4, 1998, pp. 389–412. #55
- Wernerfelt, B.,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i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5, Nr. 2, 1984, pp. 171–180.
- Williamson, O.,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 Witte, S. and Kuß, O., “Meta-Analysen mit SAS: Analysen und Graphiken,” Schumacher, E.; Streichfuss, K. (Hrsg.): *Proceedings der 5. Konferenz der SAS-Anwender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KSFE)*, Hohenheim, 2001, pp. 481–487.
- Wolf, F., *Meta-Analysis: Quantitative methods for research synthesis*, Newbury/CA: Sage University Paper, 1986.
- Yiu, D. and Makino, S., “The choice between Joint Venture and wholly owned subsidiar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rganization Science*, Vol. 13, Nr. 6, 2002, pp. 667–683. #56